+

민주당 광주 3개 선거구 이번주 여론조사 경선

광산갑 오늘부터 3일간·서구갑 10-12일 '당원 50%+국민 50%' 서구을은 7-8일 김경만·양부남·김광진 '원샷' 100% 국민경선

광주 광산갑·서구갑·서구을 등 3개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 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시작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산갑 선거구 는 4-6일 현역인 이용빈 국회의원과 박 균택 전 광주고검장이 1대1 경선을 치

서구갑 선거구의 경우 10-12일 3일간 송갑석 현 국회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 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맞대결한다.

당초 서구갑의 경우 송 의원과 조 전 부시장의 2인 경선이 발표됐다가 민주

당 재심위원회에서 박혜자 전 의원까지 3인 경선하기로 했지만, 지난 1일 최고 위원회에서 또 다시 뒤집혀 2인 경선으 로확정됐다.

광산갑·서구갑 선거구의 여론조사 는 국민참여경선(일반국민 50%+권리

당원 50%) ARS 투표 방식으로 실시 된다.

경선 시작일로부터 이틀간은 권리당 원에 대해 '강제적 ARS'가 진행된다. 첫날 2차례, 이튿날 3차례 투표권자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고 투표하는 방식이 다. 마지막 날은 '자발적 ARS' 조사로 직전 이틀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권 리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하는 방식이다.

권리당원은 지난해 7월31일까지 입당

승인이 완료된 당원으로 지난해 2월1일 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다.

이와 함께 전략선거구인 서구을 선거 구의 경우 오는 7-8일 김경만 국회의원 (비례)과 양부남 민주당 법률특보, 김 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서구을 여론조사는 권리당원 조사 없 이 안심번호 ARS 투표 100% 국민경선 으로 치러진다. 결선투표 없이 1위를 한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선거구별 경선 결과는 여론조사 마지 막날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광주의 경우 서구갑 지역 경선을 마지막으로 총선 본선에 오를 후보 공천이 완료된 다"며 "최근 5곳의 선거구에서 1곳 만 이 현역이 공천장을 따낸 상황으로 남 은 3곳의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기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29일 구례 화엄사에서 마라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표 부 대사를 비롯해 유럽지역 19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화엄사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대사들과 경제·산업·관광·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하는 등 세일즈 외교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 제공〉

민주 광주 경선 '불법선거' 문제 제기 잇따라

동남을 이병훈. 허위사실 유포·금품 살포 등 수사 촉구 북구갑 조오섭 재심 청구는 기각 결정 없이 지속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예비후보는 3 일 광주 동남을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 위사실 유포와 금품 살포 혐의 등 불법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 며 중앙당의 경선 결과 무효화 조치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측이 허위로 조작된 '가짜 하위 20% 명 단' 지라시를 조직적으로 배포하며 불 공정 경선을 주도했다"며 "'하위 20%에 포함됐다', '컷오프될 가능성이 크다'는 등 흑색선전이 끊임없이 유포됐지만 저는 컷오프되지도 않았고 하위 20% 명 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수웅 전 광주시의회 부 의장을 포함한 4명이 특정 후보 측에 가 담해 다수의 카톡방에 조작된 하위 20% 명단을 유포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 당 국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해 현재 수사 가 진행 중"이라며 "허위사실 유포 행 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 표죄에 해당하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공명선거를 저해한 불 법·부정선거 혐의가 있는 후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달라" 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당국에 조속 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론조사 경 선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에 게 패했다.

앞서 광주 북구갑 경선에서 패배한 조오섭 예비후보도 '정준호 예비후보 측이 경선 투표 당시 대학생 등 20명을 고용해 일당 10만원을 주는 대가로 전 화를 돌렸다'는 등의 언론 보도와 관련 민주당과 검찰에 신속한 조사·수사를 촉구하고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박선강기자

'오락가락 민주당' 이개호 단수공천 확정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이개호 국회 의원 단수공천 지역으로 확정됐다. 광 주 서갑도 '송갑석-조인철' 후보간 양 자대결로 다시 조정됐다.

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최고위는 이날 후보자재심위원회가

올린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개호· 박노원・이석형 3인 경선 안 ▲광주 서 갑 송갑석·조인철·박혜자 3인 경선 안 ▲목포 김원이·배종호·문용진 3인 경 선 안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 재심위는 ▲담양·함평· 영광·장성에 대한 이개호 단수공천 대 더불어민주당 지난 1일 심야 최고위 신 박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석형 전 함평군수을 포함한 3인 경선 방안 ▲광주 서갑을 송갑석 의원, 조인철 전 광주시 부시장 2인 경선에서 박혜자 전 의원을 포함한 3인 경선 방안 ▲목포 김원이 의원과 배종호 전 KBS 기자의

광주 서갑 송갑석-조인철 2인 경선 최고위, 재심위 안건 3건 모두 기각

2인 경선에서 문용진 한의사를 포함한 3인 경선 변경 방안 등 3건을 최고위원 회에 올렸었다.

이와 함께 최고위는 또 순천・광양・곡 성·구례을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 고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공 천했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은 컷오프됐다. 서 의원에 대한 컷 오프는 광주·전남 현역 의원 중 첫 사 /김진수기자

나주·화순 신정훈·손금주·구충곤 3인 경선

영암·무안·신안 서삼석·김태성·천경배 3인 경선 여수갑 주철현 vs 이용주·여수을 김회재 vs 조계원 해남·완도·진도 윤재갑·박지원 2인 경선 실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손훈모·김문수 2인 경선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 장은 지난 1일 전남에서 2인 경선 선거 구 3개, 3인 경선 선거구 2개 등을 포함해 총 19개 지역(단수공천 8곳, 경선 11곳) 에 대한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수갑의 경우 주철현(초선)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이, 여수을에서는 김회 재(초선) 의원과 조계원 당 부대변인 이, 해남·완도·진도에서는 윤재갑(초 선)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맞대결을 벌인다.

또 나주·화순은 신정훈(재선) 의원

과 손금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 가, 영암·무안·신안에서는 서삼석(재 선) 의원과 김태성 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치러진다.

특히 '3인 경선'으로 치러지는 나주· 화순과 영암·무안·신안 등은 결선투표 까지 도입돼 예측불허의 접전을 예고 하고 있다.

또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 략선거구가 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은 손훈모(54) 변호사와 김문수(55) 민 주당대표특보간의 '2인 경선'으로 후보 자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각축을 벌였던 서갑원 전 의원과 신성식 전 수 원지검장은 컷오프됐다.

광주·전남 시·도의원 의정비 인상…月550여만원 수령

광주시의원과 전남도의원 의정 활동 비가 대폭 인상된다. 의원 1인당 월 550 여만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3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각각 회의를 열 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시·도의원

의정활동비 모두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3% 인상했다.

광주시의원의 월정수당은 2022년 340 만8천630원, 2023년 345만6천350원, 2024 년 351만5천100원으로 공무원 보수 인 상률 등을 반영해 매년 인상돼왔다. 전

남도의원의 월정수당도 2022년 294만9 천340원, 2023년 341만400원, 올해 346만 8천400원이다. 인상된 의정비와 월정수 당을 합하면 광주시의원은 매월 1인당 551만5천100원, 전남도의원은 546만8천 400원을 받는다. 전남도의원의 경우 회 기 중엔 교통비·숙박비를 별도 실비로 받는다. /김재정·박선강기자



+